

# 강진군,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부터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마량 미향횃집거리 운영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적극적인 홍보로 높은 평가 받아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은 전남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15개 시·군, 17개 음식거리를 대상으로 4개 부문 12개 정량지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4개소(최우수 1, 우수 1, 장려 2)를 선정했다.  
강진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와 2021년 마량 미향횃집거리 2개소를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남도음식거리 조형물 및 포토존 제작 ▲불금불과 행사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개발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

도음식거리를 명품거리로 조성해 왔다.  
또한 강진군은 남도음식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문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남도음식거리를 전국 대표 음식거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을 통해 강진의 대표 먹거리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도음식거리를 더욱 발전시켜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군, 우수 농수산물 베트남 시장 진출

### 올해 호주·미국에 이어 베트남 시장까지...농수산물 수출 파란불

진도군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유통업체 동양농수산물(대표 홍덕자)과 1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우흥섭 진도부군수를 대표로 구성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베트남을 방문해 원마트(하노이 소재), 플러스마트(박닌 소재) 등 진도 농수산물 판촉행사장에 참석하고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 협약은 앞으로 1년간 진도군 농수산물의 베트남 시장 100만 달러 규모의 입점을 주요 내용으로, 호주와 미국 수출 협약에 이어 3번째 농수산물 수출 협약이다.  
베트남 현지 마트에서 오는 22일까지는 진도산 배미, 꽃게, 미역, 다시마, 김부각, 울금 가

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 강화를 위한 판촉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노이의 원마트에서는 한국음식(K-food) 유행에 맞춰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박닌의 플러스마트에서는 국내 대기업 현지 공장이 있어 고품질의 맛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베트남 교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진도군과 베트남 교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우흥섭 진도부군수는 "호주와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도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진도군 농어



가야 실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7월 호주와 100만 달러의 진도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11월에는 미국 시장에 5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체결을 달성해 우수한 농수산물의 무한한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군, 농어촌 빈집 정비 나선다"

### 18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장흥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석훈 부군수를 비롯 실과소장 및 용역사 등 총24명이 참석해 용역 수행기관의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장흥군 빈집실태 ▲장흥군 장래인구 전망 등의 분석 자료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방안이 보고되었다.  
제안된 7개 사업의 예상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1만원임대주택 ▲건강치유어촌 ▲산단 청년주택 등이 있다.  
군은 연구용역에서 최종 제안된 7개 사업을 관련 실과소와 공유하고 이듬해 빈집정비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그 결과물을 주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군, 땅끝 해님이·해맞이 축제 4년만에 개최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해님이·해맞이 축제가 4년만에 재개된다.  
해남군은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제25회 땅끝 해님이·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해남 땅끝마을은 연말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해님이, 해맞이 명소로 명성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와 기상여건 등으로 지난 4년간 축제가 열리지 못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12월 31일 오후 7시부터 지역 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박완규 밴드와 제이세라, 지역 향우 출신 안세권 성악가와 함께하는 팬텀프렌즈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또한 디제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파티, 감진년 새해맞이 희망 불꽃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가래떡, 군고구마 등 온정 나눔과 영수증 기획행사, 민속놀이체험, 새해 희망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 악화에 따른 방한대책

으로 대형 원형 텐트를 설치하고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장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월 1일에는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피해 피우기, 국악 공연, 새해맞이 희망의 북춤 공연에 이어,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는 대북타고 등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오시야노 관광단지과 두륜산 오소재에서도 각각 해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12월 31일 오후 오시야노 관광단지에서는 해남팔경의 하나인 주광낙조를 배경으로 해님이 기원제, 축하공연, 불꽃쇼 등이 펼쳐지며, 1월 1일 새벽 북일면 오소재 공원에서 감진년 해맞이 기원제, 공연, 가래떡 인정나눔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가 시작되는 곳, 땅끝 해남에서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감진년, 청룡의 해의 좋은 기운을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